

# 도심 속 소통의 마중물 성미산 마을극장

글 · 양지연 yangji@kdemo.or.kr  
사진 · 황석선 stonesok@kdemo.or.kr



마을극장이라는 이름을 듣고 맨 처음 떠오른 건 10여 년 전 본 영화 시네마 천국이다. 시칠리아의 작은 섬, 마을 한 가운데 광장에는 낡은 영화관 ‘시네마 파라디소’가 있다. 마을 사람 모두의 극장이었던 ‘시네마 파라디소’. 마을 사람들이 함께 웃고 떠들며 왓지떨 영화를 보던 장면과 극장 안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영사실을 들락거리던 꼬마 아이 토토와 영사기 기사 알프레도가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런 영화 속이나 있을 것 같은 마을 극장이 생겼단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지내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도시 생활 속에서 ‘마을’이라는 단어 또한 점점 낯선 개념이 되어버린 요즘이다. 그런 도시 한복판에 마을극장이라니. 왜,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푸는 실마리는 성미산 마을이라는 독특한 공동체에서 시작된다.

15년 전 맞벌이를 하며 아기를 키우면서 삶의 문제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마을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사회가 가진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만들어지고 방과 후 학교가 생겨나고 대안학교가 생겨났다. 또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협도 생겨났다. 그러던 중에 성미산 지키기 싸움을 하며 아이의 문제뿐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2001년부터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벌이며 숲속에서 음악회를 개최했어요. 그 후에 숲속음악회가 마을로 내려와 길거리와 골목에서 축제를 열었는데 반응이 무척 좋았죠. 주민들이 꾸린 밴드 동아리, 인형극 동아리, 풍물반, 사진반, 살사댄스를 추는 모임 등 모두 모여 한 판 신나게 놀고 나니 1년에 한번 놀고 마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놀 공간을 찾다보니 극장에 까지 생각이 미친거죠.” 유창복(48) 마을극장 대표의 말이다.

## 극장, 놀이를 통해 경계와 문턱을 즐겁게 넘나드는 놀이터

주택가 골목길, 4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지상 5층 건물 ‘나무’의 지하 공간이 마을극장이다. 극장터는 2007년 이 동네에 새로 집을 지으며 이사 온 시민단체들이 마련해줬다. 동네 주민들과 의미 있는 공간 나눔을 하고 싶다는 그들의 제안에 성미산 마을은 마을극장을 만들자고 했단다. 그래서 건물을 설계할 때 이미 지하 1, 2층은 극장으로 만들 계획을 한 것이다.

30평 남짓한 공간에는 무대도 고정된 객석도 없다. 공연 내용에 따라 무대가 만들어지고 여기저기 널려있는 빨강, 파랑, 노랑 울긋불긋 네모난 상자가 모여 객석이 만들어진다. 조명, 음향, 분장실 까지 제대로 갖췄으니 어느 전문 극장 부럽지 않다.

지난 2월 문을 연 성미산 마을극장은 두 달 동안 개관 기념 페스티벌을 열었다.



“극장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수면 아래에는 극장을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미산 마을극장 유창복 대표의 말이다.





30평 남짓한 공간에는 무대도 고정된 객석도 없다. 공연 내용에 따라 무대가 만들어지고 여기저기 널려있는 빨강, 파랑, 노랑 울긋불긋 네모난 상자가 모여 객석이 만들어진다. 조명, 음향, 분장실 까지 제대로 갖췄으니 어느 전문 극장 부럽지 않다.

마임공연, 가수의 라이브 콘서트, 엄마 아빠들이 만든 밴드 공연, 연극 공연, 영화 상영회 등 다양한 공연들이 두 달 동안 펼쳐졌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웃집에 마실 다니듯 극장을 드나들었다.

“공연을 봤던 마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극장이 무척 따뜻하다는 겁니다. 공간의 물리적인 느낌만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모인 관객과 아티스트들이 공연 시간 동안 주고받은 호흡, 그 공기가 따뜻하다는 거겠죠.”

마을극장에는 정해진 객석이 없다. 자유로운 공간만큼 관객도 자유롭다. 아이들, 어른들 함께 보며 즐기는 공간이다. 격식도 엄숙함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속에서 관객들은 배우와 함께 자신들 또한 극장의 주인공이 된다. 배우와 함께 긴장했다 함께 풀어지면서 쏟아내는 웃음은 더없이 유쾌하고 따뜻할 수밖에 없다.

페스티벌 기간 중 가장 큰 인기를 모은 건 다름 아닌 주민들이 만든 연극동아리 ‘무말랭이’의 연극공연이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 사람이 무대에 나오니 관객들도 덩달아 신이 날 수밖에…….

이런 마을극장의 등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을에 이야기 거리가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무대에선 엄마 아빠의 이야기, 공연 이야기, 극장을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 거리가 생겨나는 거죠”

풍성해진 이야기 거리만큼 마을 사람들 간의 문턱은 더욱 낮아졌다. 마을극장이

지역사회의 경계와 문턱을 즐겁고 가볍게 넘나드는 놀이터였으면 좋겠다는 유창복 극장장의 바람은 이미 이루어진 듯하다.

### 잊지 말게. 모든 게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라는 걸

“사실, 극장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수면 아래에는 극장을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어떤 기분 좋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까. 마을극장은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 몸이 근질근질한가 보다.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들과 그를 실현할 행동력이 함께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극장에 오는 많은 예술가들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아이들에게는 좀 더 긴밀한 예술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도 늘 양질의 문화예술 자원과 만날 수 있구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마을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인들이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연극으로 담아 친구, 자식, 손주를 불러다 이야기하는 노인 연극 워크숍, 아이들 연극교실, 엄마 아빠 연극교실, 마을 합창단 등 잠깐 귀땀해준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부푼다.

음악이든 미술이든 단순히 기능 기예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통해 직접 무대에서 보면서 자신의 재능을 표현하는 법, 관객과 소통하는 법 등 종합적인 예술적 사고를 배울 수 있고 또 예술을 통해 마을 사람들끼리 소통을 하게 되니 이 이상 훌륭한 예술학교가 어디 있겠는가. 그것도 집 가까운 곳에 말이다.

유창복 극장장의 얘기를 듣는 동안 잠깐 환타지의 세계에 다녀온 듯한 기분이다. 꿈을 꾸면 뭐든 이루어지는 동화 속 마을에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졌다.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즐거운 만큼 그만큼의 고통은일도 있는데 즐거움이 한 개 더 많다고 여겨질 때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푸근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의 얼굴에는 힘든 일 조차도 즐겁게 하는 모습이 보인다.

마을 소식지에 실린 마을극장이 마을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구절이 귓가에 맴돈다. “잊지 말게. 모든 게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라는 걸”

사진제공 성미산 마을극장

